

# 아카렌가 통신



홋카이도청 국제과 소속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한국 우호지역과의 교류사업 및 홋카이도의 정보 등에 대해 작성한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고, 벚꽃놀이 연회 금지가 4년 만에 풀리는 등 일본에서도 사람들의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처럼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다는 듯 봄도 일찌감치 찾아왔습니다. 홋카이도는 2월 마지막날에 2월 관측사상 최초로 가장 높은 두 자릿수 기온을 기록했고, 3월 중순경부터는 계절을 앞서간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홋카이도의 낮시간이 일본 지역들 중 가장 길어진다는 사실도 따사로운 햇살 덕분에 실감나는 듯합니다.

## 부산·제주 DAY 실시



홋카이도는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각각 2005년 12월, 2016년 1월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1월 25일부터 이틀 동안 홋카이도청 1층에서 '부산·제주 DAY'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각 지역들을 소개하는 패널전을 비롯하여 관광 팸플릿과 가이드북 배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월 26일 낮에는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두 지역의 개요와 명소, 향토음식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우호 지역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 한국 DAY @삿포로돔



홋카이도 삿포로시를 연고지로 하는 J리그 축구팀 '콘사돌레 삿포로'에는 현재 두 명의 한국인 선수(FW 13 김건희 / GK 25 구성윤)가 활약 중입니다.

지난 2월 25일, 비셀 고베와의 홈 개막전이 열렸던 삿포로돔에서는 홋카이도와 우호제휴를 체결한 한국의 네 지역(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을 소개하는 패널전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사 부스에서는 한국인 선수들의 영상 메시지도 상영되어 경기장을 찾은 팬들에게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 고등학교 방문 강연



3월 7일, 홋카이도청 국제과에 근무 중인 김소현 국제교류원(한국)과 아르미 국제교류원(핀란드)이 삿포로 히가시 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국제경제과 1학년 학생들에게 출신국의 개요와 문화, 교육과정 및 대학입시 제도 등을 소개하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전체 강연이 끝나고 각 교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서울에서 산낙지를 먹을 수 있는 곳', '맵지 않은 한국 음식', '현재 인기있는 아이돌 그룹' 등을 질문하며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 쁘띠 코리아 DAY



3월 25일, HIECC에서 주최한 '쁘띠 코리아 DAY'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관심이 있는 도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열린 2022년 제주국제청소년포럼에 참가한 홋카이도의 고등학생들이 토론과 문화교류를 통해 배우고 느낀점 등을 발표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김소현 국제교류원이 진행하는 한국 우호교류지역 소개 세미나와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진행하는 한국 퀴즈코너도 마련되어, 참석자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 가미카와 종합진흥국 방재훈련 참가



홋카이도 가미카와 종합진흥국에서 실시하는 방재훈련에 김소현 국제교류원과 아르미 국제교류원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대지진 발생 시 지자체 방재 담당자들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음성 번역기와 스마트폰 번역 어플을 활용한 외국어 모의 상담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언어 장벽을 초월하여, 재난 상황에서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상담에 응해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저도 일본에서 방재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학습한 내용들을 이번 기회에 돌아켜볼 수 있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 홋카이도에서 즐기는 겨울 스포츠

홋카이도에서는 기상천외한 겨울 스포츠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2월이 되면, 참가자들이 집에서 만들어진 쌀포대 썰매를 타고 언덕을 질주하며 속도를 겨루는 '홋카이도 쌀포대 썰매 선수권' 대회가 열리곤 하며, '쇼와신잔 국제 눈싸움 대회'를 비롯한 눈싸움 대회들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이어 다양한 겨울 스포츠를 즐겼습니다.

삿포로시 미카호 체육관은 겨울철에 아이스링크를 컬링장으로 개방하기도 합니다. 스케이트장 영업시간이 끝난 후, 정빙 작업을 하여 컬링시트를 만들기 때문에 컬링 체험은 저녁부터 진행됩니다. 이곳에서는 헬멧과 컬링 브러시, 슬라이더(덧신)같은 장비들을 무료로 대여해줄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코칭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도 컬링의 진입장벽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은 경기 규칙을 비롯하여 '헐', '워' 등 선수들이 외치는 구호의 뜻, 각 포지션들의 역할과 전략 등을 전수받은 후, 팀을 나눠 남녀노소 다함께 미니게임을 즐겼습니다. 경기를 할 때는 하우스(표적) 밖으로 밀어내야 할 상대팀 스톤의 위치나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하여 스톤을 던져야 하기 때문에, 컬링은 흔히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지만, '알까기'와 더 비슷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스톤들이 경쾌하게 부딪힐 때마다 환호와 탄식이 공존하는 상황이 꽤 흥미로웠습니다.

올해는 또 다른 이색 종목에도 도전해 보았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화제가 된 '스켈레톤'입니다. 삿포로에는 1972년에 개최된 삿포로 올림픽의 연습 코스로 지어진 루지 경기장이 있어서, 겨울철에는 시민들도 루지와 스켈레톤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실제 얼음 트랙을 달리게 됩니다!



실제 경기에서 선수들이 평균 1,300m의 트랙을 활주하는 것에 비해 체험 코스는 250m로 짧았지만, 스켈레톤은 생각보다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종목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썰매를 타기 때문에 지면과 얼굴의 거리가 꽤 가까웠고, 만약 실수로 핸들을 놓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활주를 하는 동안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트랙을 내려갈수록 가속도가 붙어서 코너를 돌 때쯤에는 몸이 썰매에서 튕겨나가는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공포심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쇠뿔도 단김에 빼라'는 말처럼 삿포로 시민대회 스켈레톤 경기까지 출전해버린 저는 운 좋게 4위를 차지했습니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 한국어판  
바로가기



✓ 홋카이도청  
국제과  
FACEBOOK



✓ 편집자·발행처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홋카이도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3조 니시6조메  
TEL : +81-11-231-4111 FAX : +81-11-232-4303